

대한제국기 十二章 도상의 계승과 확산

김주연*

- I. 머리말
- II. 十二章의 연원과 제도화
- III. 대한제국기의 十二章 도상
- IV. 맺음말

I. 머리말

十二章은 古代 中國 天子의 禮服인 冕服에 시문되었던 12가지 圖像을 지칭한다.¹ 일찍이 『尙書』 「益稷」편에서부터 그 기록이 나타나며, 後漢의 明帝가 십이장을 시문한 면복을 황제의 제례복으로 정식으로 제도화하면서, 12개의 章文은 天子에서 大夫까지 신분에 따라 12, 9, 7, 5, 3, 1로 차등을 두어 면복에 시문되었으며 통치적 질서를 드러내는 표상이 되었다.² 때문에 이 도상들은

* 이화여자대학교

¹ 십이장의 도상에 대하여는 중국 先儒의 해석에 따라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역대 면복제도에서는 後漢代 鄭玄 (A.D. 127-200)의 학설을 채용하여 十二章을 日·月·星辰·山·龍·華蟲·宗彝·藻·火·粉米·黼·黻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제국까지 적용되고 있다.

² 『後漢書』 志 第三十 「輿服下」, “...天子備章, 公自山以下, 侯伯自華蟲以下, 子男自藻火以下, 鄉大夫自粉米以下...”이 기록을 통해 천자는 제례복에 장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공은 山이하, 侯伯은 華蟲이하, 子男은 藻火이하 鄉

秦漢 시기의 伏生을 선두로 여러 유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고대 중국의 어떤 장식적 시각이미지보다 문헌과 도설로 그 형상과 의미에 대해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이처럼 열두 개의 도상들은 황제의 예복에 결집되어 장식되었으나, 다른 의례적 기물의 도안이나 회화적 이미지 가운데에서도 단독 혹은 집합적으로 시문된 예들이 다수 발견된다. 실제 중국 고대의 禮書에서는 각 도상이 지닌 함의와 의례성에 대한 여러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³ 『상서』 「익직」편을 분석한 유학자들의 견해 중에도 십이장의 문양이 복식과 기물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唐代 張彥遠의 『歷代名畫記』, 宋代 郭熙의 『林泉高致』 같은 화론서에서는 그림의 시원으로도 언급되고 있어 이 도상들을 미술사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⁴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에 이르면 유교적 통치이념 아래 五禮에 의거한 禮治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冊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사여 받은 면복과 翟衣, 玉圭 등은 왕조의 정당성과 유교적 禮를 드러내는 시각적 표상물로 자리한다. 조선의 왕은 제후국으로서 九章服만을 입을 수 있었으나 여러 궁중의례장식에 십이장의 도상들이 사용된다.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함께 황제가 된 고종은 十二章服을 입고 儀仗旗에 日月을 시문하며 이 尙古의 문양을 중국의 禮의 정치질서에서 벗어난 황제국의 시각 이미지로 사용한다. 그러나 1910년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고 황제는 왕으로 격하되어 1945년까지 李王家로서 존재

大夫는 粉米이하를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면복을 착용했던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처럼 신분에 따라 문장을 구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고려도경』과 『국조오례의』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교문사, 2002), pp.130-132, pp.188-206 참조.

3 기물에 시문된 경우 복식처럼 문양을 사용할 수 있는 위계를 명확히 구분해 놓은 기록은 없으나 고대 예서에서는 십이장에 속하는 열두개의 도상들이 천자의 기물과 제기에 집중적으로 시문된 많은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김주연, 『조선시대 궁중의례미술의 십이장 도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pp.9-29 참조.

4 복식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한·중·일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운데서도 原田淑人, 『漢六朝의復飾』(東洋文庫, 1967); 王宇清, 『冕服服章之研究』(臺北:中華叢書審委員會, 1968); 박옥련, 『조선시대 십이장문의 근원 및 전래 동향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제 7집(1986); 최규순·고부자, 『冕服 文章 연구: 『尙書』 「益稷」을 중심으로』, 『역사 민속학』, 23호(2006); 崔圭順, 『中國歷代帝王冕服研究』(上海:東華大學出版社, 2007) 등에서는 복식이외의 분야에서도 십이장의 도상이 시문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하야시 미나오는 漢代의 고고학 자료에서 당시 유학자들이 해석한 十二章의 도상을 선별하여 漢代인들이 생각했던 章文의 형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林巳奈夫, 『天子의衣裳의十二章』, 『史林』 제 52권 6호(京都:京都大學文學部 史學研究會, 1964).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는 본인의 박사논문에서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유교적 관념 속에서 周代로의 회귀를 꿈꾸었던 조선왕조의 의례미술 전반에서 여러 장르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십이장 도상들의 적용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는 조선시대 궁중의례미술의 시문원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 시도였다.

하지만 李王職에서 발행한 의궤와 經書의 도설에 면복과 각종 의물의 도설이 게재되고 있어 이 도상들의 긴 역사성을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격변의 시기였던 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 근대기 문헌에 나타난 도설과 기록을 현전유물과 비교하면서 이 도상들의 계승과 확산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⁵

II. 十二章의 연원과 제도화

1. 문헌적 연원

『書經』『益稷』에는 “帝曰臣作朕股肱耳目予欲左右有民汝翼予欲宣方四方汝爲予欲觀古人之象日月星辰山龍華蟲作繪宗彝藻火粉米黼黻絺繡以五采章施於五色作服汝明”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방점이 없고 語義가 모호하며 십이장이라는 언급도 없다.⁶ 이후 文章의 종류와 각 도상의 위계 순서인 章次, 문장의 수에 대하여는 경학자들에 의해 여러 견해가 엇갈렸으나, 후한의 明帝(재위 A.D.57-75)가 장문을 시문한 면복을 정식으로 황제의 제례복으로 제정하였고,⁷ 『後漢書』『輿服志』에는 덕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면복의 유교적 성격에 대한 설명과,⁸ 십이장의 연원을 밝히고 있다.⁹ 이후 鄭玄(A.D.127-200)이 정의한 십이장의 도상이 역대 면복제도에 채

5 이 연구는 본인의 박사논문 가운데 소략하게 다루었던 중국 청대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의 시문현황을 좀 더 주목하고 보완한 것이다.

6 이 기록에서 도상을 지칭한 말은 ‘象’과 ‘彰’을 찾을 수 있는데, ‘彰’은 ‘章’과 상통한다.

『春秋左傳』『隱公元年』에는 “昭文章, 明貴賤”이라 하여 “文章”이 귀천을 밝힌다 하였다. 이후 前漢代 董仲舒의 『春秋繁露』에서 “天子服有文章”, “染五彩飾文章”등 ‘文章’이라 지칭됨과 더불어 『後漢書』에서도 “天子備章”, “衣裳文章”으로 12문양을 통칭하여 이들이 ‘文章’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後漢書』에서는 ‘文章’과 ‘十二章’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후한대 학자인 馬融과 鄭玄의 기록에서도 이를 ‘十二章’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역대 많은 개별 도상들에 대한 설명에서는 ‘象’, ‘文象’ 혹은 ‘章’이 사용되었다. 이밖에 복식에 나타난 이러한 도안을 服章, 彩章·衣章 등이라 하며, 이 때문에 면복을 ‘章服’이라고도 한다. 복식에 나타난 이러한 어휘들에 대해서는 崔圭順, 『中國歷代帝王冕服研究』(上海: 東華大學出版社, 2007), pp. 289-291 참조.

7 『後漢書』志 第三十「輿服下」, “日月星辰, 山龍華蟲, 作繪宗彝, 藻火粉米, 黼黻絺繡以五彩章施於五色作服. 天子備章…”

8 『後漢書』志 第三十「輿服下」, “夫禮服之興也, 所以執功章德, 尊仁尚賢. 故禮尊尊貴貴, 不得相踰 所以爲禮也, 非其人不得服其服, 所以順禮也.”

9 『後漢書』志 第三十「輿服下」, “上古穴居而野處, 衣毛而冒皮, 未有制度. 後世聖人易之以絲麻, 觀翬翟之文, 榮華之

용되면서 후세 12장의 정설이 되었다.¹⁰ 그러나 이전 시기인 西漢 초기의 孔安國은 이 文章들이 旌旗와 器物에도 함께 시문됨을 언급하고 있었으며,¹¹ 唐代 孔穎達의 疏에서는 이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다.

위에서 이미 ‘古人의 象’이라고 하였으니 法象이 기물에 두루 퍼져 있으므로 모두 밝혀야지 의복에 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旌旗와 器物도 모두 채색으로 장식하고 의관을 갖추어 준비를 밝히기 때문에 총괄하여, ‘옷을 만들다’라는 말로 글을 마친 것이다.¹²

실제 십이장에 속하는 개별 도상들은 『周禮』, 『儀禮』, 『禮記』등의 예서에서 면복 이외에도 天子가 사용했던 여러 기물들을 장식하고 있어 의례적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이미지로 통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십이장은 그림의 원류로도 기록되는데 張彥遠(?-875년경)의 『歷代名畫記』에서는 “有 虞氏가 그림을 만들자 회화가 밝혀졌다. 이미 밝게 펼쳐지니까 비유적인 형상이 깊어졌다. 이로써 예악이 널리 퍼지고 교화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천자의 지위를 서로 양위하여도 천하는 잘 다스려지고 文章은 환하게 갖추어졌다…”라고 하였는데, 이 글에서 그림을 만든 것으로 기록된 유우씨는 『상서』 『익직』에서 古人의 象을 제시한 舜이다.¹³ 이후 송대 郭熙는 『林泉高致』의 서문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십이장이 그림의 근원임을 서술하였다.

色，乃染帛以效之，始作五彩，成以爲服。見鳥獸有冠角胡之制，遂作冠冕纓黻，以爲首飾。凡十二章，故易曰：「庖犧氏王天下也，仰觀象於天，俯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於是始作八卦，以通神明之德，以類萬物之情。」皇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蓋取諸乾☰，乾川有文，故上衣玄，下裳黃”

¹⁰ 정현의 十二章文은 각주 1 참조.

¹¹ 孔穎達, 『尚書正義』, 「孔安國注」, “欲觀示法象之服制, …畫三辰, 山, 龍, 華蟲於衣服旌旗, 會, 五彩也, 以五彩成此畫焉。宗廟彝樽亦以山, 龍, 華蟲爲飾”

¹² 孔穎達, 『尚書注疏』卷五 虞書, “故云以五彩成此畫焉謂畫之于衣, 宗舜文承作會之下, 故云宗廟彝樽, 亦以山龍華蟲爲飾, 知不以日月星爲飾者, 孔以三辰之尊, 不宜施于器物也。周禮有山, 龍, 華蟲爲飾, 亦畫之以爲飾也。周禮彝器, 所云犧象, 鷄鳥者, 鄭玄皆爲畫飾, 與孔意同也, …孔云旌旗亦以山龍華蟲爲飾者, 但此雖以服爲主, 上既云「古人之象」, 則法象分在器物, 皆悉明之, 非止衣服而已。旌旗器物皆是彩飾, 被服以明尊卑, 故總云「作服」以結之。”

¹³ 張彥遠, 『歷代名畫記』, 「敘畫之原流」, “乎有虞作會, 繪畫明焉, 既就彰施, 仍深此象, 於是禮樂大闢, 教化絳興, 故能揖讓而天下治, 煥乎而詞章備…廟肅而罇彝陳, 廣輪度而彊理辨”, 張彥遠著, 조송식 옮김, 『歷代名畫記』(시공사, 2008), pp. 22-24.

…황제는 의상을 제작하면서 무늬의 수를 구별하여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繡로 놓기도 하였으니, 이는 모두 그림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순임금이 열두 가지 무늬인 산, 용, 평 등을 그리기 위해 ‘옛사람의 상을 본다.’하였고, 또 『爾雅』에서는 ‘畫는 象이다.’하여 象이 곧 그림임을 말하였다…¹⁴

이와 같은 기록들은 십이장이 복식과 기물의 장식도안일 뿐 아니라 이후 발전하는 회화의 근원적 형상임을 제시하여 십이장이란 명명된 열두 가지 도상을 미술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2. 십이장복의 制度化와 儀禮書의 편찬

後漢代에 십이장이 시문된 면복이 제도화된 이후 晉, 隋, 唐 등에 걸쳐 제도는 지속되었고 십이장의 도상 또한 존엄한 象으로 전승되었다. 문헌으로만 전하던 십이장의 도상들은 삼도를 게재한 의례서와 여러 서적의 출판으로 인해 시각 이미지가 함께 유포된다.

먼저 북송 961년(건륭 2년)에 박사 聶崇義가 虞, 周, 漢, 唐의 舊制를 참조하여 만든 『三禮圖』¹⁵에는 면복과 적의 등의 복식을 비롯하여 천자의 수레와 깃발, 어좌병풍, 황후의 가마, 제례, 상장례에 사용된 기물의 많은 圖說이 게재되어 있다. 먼저 복식에서는 여러 제사에 따라 다른 장문을 시문한 袞冕, 鷩冕, 毳冕,



도1 『三禮圖』, 宋, 聶崇義. 袞冕



도2 『三禮圖』, 宋, 聶崇義. 褙依

¹⁴ 郭熙, 『林泉高致』, “郭熙林泉高致集原序, …黃帝制衣裳, 有章數, 或繪或繡, 皆畫本也, 故舜十二章, 山·龍·華蟲·日·“觀古人象”, 『爾雅』曰“畫象也”, 言象之所以爲畫爾…”, 郭熙著, 신영숙 역, 『郭熙의 林泉高致』(문자향, 2003), pp. 6-8.

¹⁵ 『宋史』卷151 『志第』一白四, 輿服三, “後漢顯宗初服, 日月星辰十二章, 以祀天地. 自魏以來, 皆用袞服…袞冕之制, 宋初因五代之舊…且太祖健隆元年, 少府監所造冕服, 及二年, 博士聶崇義, 所進『三禮圖』, 嘗詔尹拙, 實儀參校之, 皆仿虞, 周, 漢, 唐之舊”



도 3 『三禮圖』, 宋, 聶崇義, 柳車



도 4 宋, 清代 재간행본

綺冕 등의 면복과 꿩을 시문한 褱衣, 揄翟, 闕翟 등 황후의 의례복이 소개되어 있다(도 1, 2). 천자의 수레 앞 태상기에는 일월성신과 승강하는 용 두 마리가 장식되었고, 어좌병풍에는 자루 없는 도끼가 시문되었다. 상장례에 사용하는 柳車에는 산, 용, 꿩, 원형의 분미문, 보삼의 도끼, 亞자인 黻文 등 일월성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십이장의 도상들이 등장한다. 유거 주위에는 삼을 든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각각의 삼 옆에는 龍翼二, 黼翼二, 黻翼二 등 명칭과 개수가 쓰여져 있다(도 3). 시신을 덮는 夷衾에도 도끼문이 발견된다. 한편 꿩은 황후의 예복 뿐 아니라 황후가 타는 厭翟車의 주요 문식이었으며, 宗彝에 속하는 虎彝와 雉彝, 상형의 곡식문을 시문한 罍彝 등도 기록되었다. 이렇듯 십이장의 도상은 면복에 집결되었으나 황후의 의복 및 다른 의례적인 기물에서도 단독 혹은 집합적으로 시문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설들은 주변국과 후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¹⁶

한편 송대에 간행되고 청대에 재간행 되었다는 『古玉圖報』에서도 圭, 璧, 璋의 제기에 星辰, 山, 龍, 火(화염), 藻(물풀), 粉末, 黼黻 등의 도상이 시문되었는데, 특히 12개의 도상이 모두 장식된 黃鐘의 도설이 있어 주목된다(도 4). 복식 이외의 기물에 12가지 도상이 모두 등장하는 예인 것이다. 이 도안이 『古玉圖報』가 청대에 재 간행되며 변안된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明代

¹⁶ 『金史』 43卷 志 第二十四, 「輿服」, 「鎮圭, 大圭, 皇統九年十月二十四日, 禮部下太常, 畫鎮圭式樣, 大禮使據『三禮圖』以進, 用之.」 『遼史』와 『元史』에서도 십이장의 제도가 사용됨을 발견할 수 있다.

에 출판된 墨寶인 『程氏墨苑』에서도 有虞十二章이라는 글씨를 에워싸고 12개의 도상이 위치한 도설이 발견되어 이미 청대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것으로 짐작된다(도 5).

이 밖에도 명대 영락년간(1402-1424)에는 송대 蔡沈의 『書傳』을 바탕으로 胡廣(1370-1418)이 주축이 되어 제작한 『書傳大全』이 간행되었는데 십이장의 도상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과 조선에서 계속해서 재 간행되며 영향을 끼친다. 한편 명대의 국가전례서인 『大明集禮』(1369), 『洪武禮制』(1381)와 『大明會典』(1511)등에서도 면복과 더불어 여러 의례적인 기물에서 십이장의 도상이 발견된다. 제기를 덮는 籩巾에는 겉면에 자루 없는 5개의 도기를 시문하였는데 예로부터 면복의 ‘玄衣纁裳’의 색채개념을 따랐던 것을 알 수 있다.¹⁷ 『대명집례』의 호이, 유이, 가이 등 제기들에는 호랑이와 원숭이, 곡식의 도안이 더욱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면복의 경우 송대의 의가 일월성신, 산, 용, 화충, 종이, 화의 8가지가 시문된 반면 『대명집례』와 『대명회전』의 의에는 일, 월, 성신, 산, 용, 화충의 6개, 裳에 종이, 조, 화, 분미, 보, 불의 6개가 시문되어 『상서』의 기록을 준수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의의 문양은 그리지 않고 직조하는 것으로 바뀐다. 한편 면복의 쌍용 도상은 『삼례도』와 『대명회전』에는 두 마리 모두 승천하는 형태이나, 元代의 『考工記解』, 『대명집례』의 영향을 받은, 王圻의 『三才圖會』(1609)¹⁸의 삼도에는 一升一降하는 차이를 보이지만 두 도상 모두 통용된다. 이러한 명대의 출판물 속의 도설들은 조선시대 의례미술의 장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도 6).



도 5 『程氏墨苑』, 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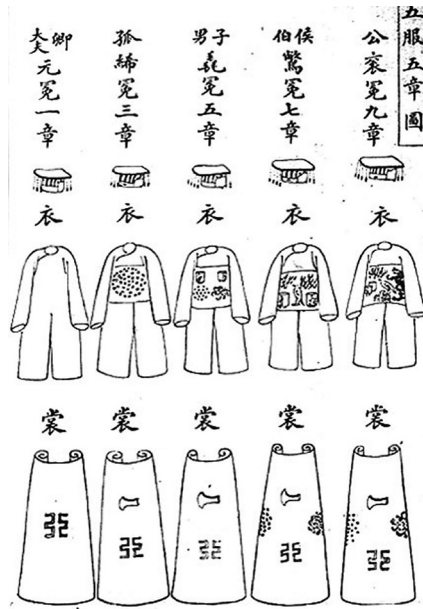
도 6 王圻 『三才圖繪』, 明

¹⁷ 『大明集禮』, “籩巾古用給玄被纁裏圓一幅今用綺或木綿青被畫斧文裏用絳繪自方一尺…”

¹⁸ 『三才圖會』와 『대명집례』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는 최규순, 「大韓禮典 복식제도 연구」, 『아세아연구』 53권 1호 (2010), pp. 204-206 참조.

3. 清代의 변용

청대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면복제도를 폐지한 왕조이다. 면복의 십이장은 淸 順治(1638-1661) 이후 다시 황제의 용포에 시문되는데, 문장의 크기는 축소되고 용포의 다른 길상문과 함께 뒤섞이지만 도상의 위용은 계속된다. 1914년 제복에 사용된 흉배에도 12장문이 등차에 따라 시문되는데 원형의 흉배에 亞字를 중심으로 여러 도상이 배치되는 새로운 형태를 보인다. 또한 청대 黃以周의 『禮書通故』의 곤복도를 보면 지금까지 예서의 도설과는 다른 배치와 양식을 보여주어 전통의 잔존으로 남아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한편 1905년(光緒31년) 청 황실에서는 『서경』의 내용을 500점이 넘는 판화로 세밀하게 그린 『欽定書經圖說』을 간행한다. 판화 중에는 명대에 출간된 『書傳大畧』의 십이장 도설과 유사한 <觀象作服圖>가 있으나 일월의 원반 안에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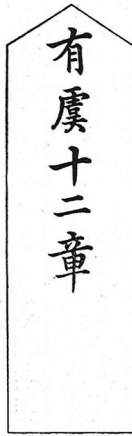


도 7 『欽定書經圖說』, 1905년, 淸

마귀와 토끼가 사라지고 무문의 원으로 표현되는 형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堯舜이 南嶽, 西嶽, 北嶽 등에 면복을 입고 巡守하는 모습과 <五服五章圖>등이 그려져 있는데 만주식 관복에 가슴 중앙에 사각의 흉배를 덧붙이고 그 안에 12장에서 1장까지의 문장을 차등을 두어 시문하고 있다. 의와 상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배치는 사라지고 청대복식에 맞게 재해석 되어 있다(도 7). 이 밖에 도교 사제의 예복에도 십이장이 시문되는데, 그 배치는 조복과 마찬가지로 다른 길상문양과 혼용되고 있어 유교적 위용과 의미가 상실된 채 상서로운 문양으로서 차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기물의 장식에서 살펴보면 청대 건륭황제가 순행을 묘사한 <大駕鹵簿圖>는 日月星辰이 시문된 깃발을 단 천자의 수레와 이를 따르는 장렬한 행렬과 노부의장이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삼각의 깃발이 일렬로 정밀하게 묘사되었는데, 일월성신 뿐아니라 용, 雉, 도끼, 亞문 등도 시문되고 있어 이 도상들이 儀仗物의 장식에 계속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된다.¹⁹⁾ 玉器 가운데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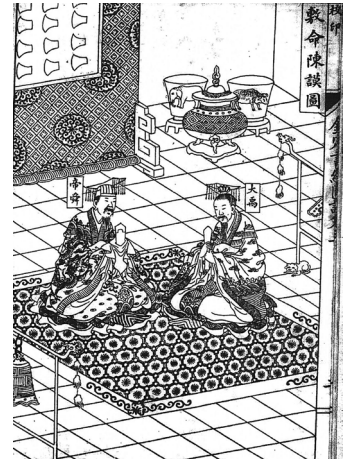
¹⁹⁾ 朱敏, 『清人<大駕鹵簿圖卷>研究』, 『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研究叢書: 繪畫卷風俗畫』(中國國家博物館, 2007).



도 8 『程氏墨苑』, 明



도 9 十二章文玉圭, 清代, 개인소장



도 10 『欽定書經圖說』, 1905년, 清 개인소장

『정씨묵원』에 나오는 십이장 규의 도안을 그대로 살린 옥규가 발견되는데, 이는 실제 사용보다는 감상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도 8, 9). 또한 『欽定書經圖說』에서도 요순 황제의 배경으로 황실 내부의 뒷벽에 자루 없는 도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천자의 병풍이었던 黼扆를 간략하게 표현한 듯하지만 扆의 형태는 사라지고 그 상징만을 전달하고 있다(도 10). 이처럼 십이장이 발생하고 발전한 중국에서는 청대에 이르러 감상과 길상의 존재로서 변모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Ⅲ. 대한제국기의 十二章 도상

1. 대한제국 황실의 尙古的 이미지, 十二章

우리나라는 1876년 개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근대가 시작되며 1897년에는 열강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국가의 자립을 위해 대한제국을 설립한다.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어 복식과 궁궐의 문양, 의장, 의궤표지, 왕릉의 형식 등 많은 부분을 왕의 격식에서 황제의 격에 맞추어 바꿔 나갔다.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표방하고 周代의 예제를 이상적인 범본으로 따랐던 조선에서는 황제의 상징이었던 일월성신을 면복에 시문할 수 없었으나 오봉병과 같은 궁중의 병풍에서는 일월의 도상이 사용된다. 이 밖에 다른 개별 도상들은 주로 의례적인 기물과 제기의

장식도상으로 사용된 예들이 발견되지만 중국과 달리 십이장의 도상이 함께 시문된 기물이나 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²⁰

고종은 황제국의 위상에 맞는 국가 전례를 실행하기 위해 1897년 6월 14일 史禮所를 설치하고 담당 관리를 임명했지만 국가재정의 문제로 『대한예전』이 완성되기 전에 폐지된다. 1898년 연말에 張志淵(1864-1921)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大韓禮典』이 편찬되었으나 오례를 다루는 분량에서도 불균형이 나타나며, 권3-권5 부분에는 도설이 뒤섞여 있다.²¹ 이런 현상은 편찬 기간이 너무 짧아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²² 그러나 이러한 의례서와 의궤, 현전하는 유물들을 보면 이 시기에는 복식, 기용, 의물과 의장, 건축 등 의례미술의 제 분야에서 조선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십이장의 도상들이 더욱더 많은 기물에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겠다.

1) 服飾

대한제국에 들어 고종과 순종은 십이장복을 공식적으로 착용하였으며, 유물은 전하지 않으나 이를 착용하고 찍은 순종의 사진이 현전한다(도 11). 고려 공민왕 때 元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흥정치와 자주성의 발취로 잠시 십이류면, 십이장복을 착용하였으나,²³ 명 성립 후로 조선에서는 중국 친왕례에 준하여 줄곧 九旒冕·구장복을 착용하였기에 대한제국에서의 十二旒冕, 십이장복의 착용은 황제국의 천명과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남을 상징한다.

『대한예전』에는 새로운 제국의 상징으로 12장문이 모두 시문된 면복도가 게재되었는데, 上衣에 시문된 문장의 개수와 양식은 『대명회전』의 도설을 따르고 있다.



도 11 순종의 십이장복 착용사진, 이각중, 『순종실기』, 1927년

²⁰ 김주연, 앞의 논문 (2012), pp. 98-156 참조.

²¹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해석』 35 (2006), pp. 111-128 참조.

²² 임민혁, 「대한제국기 『대한예전』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실학』 34 (2007) 참조.

²³ 『世宗實錄』 26年 (1444), 윤 7月 23日(庚子), “임금이 한확·김중서·이숙치 등과 복식과 공법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편 참조.

등 가운데 부분에는 5개의 규를 세운 듯한 도식적인 五嶽文, 일월과 다섯 개의 성신문이 놓이고 양쪽 소매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승룡과 꿩이 그려졌다. 조선시대까지 衣의 문장을 그림으로 그리는 古式적인 방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대한예전』에는 ‘織’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裳과 蔽膝의 도안은 『대명집례』를 따른 『삼재도회』의 도설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²⁴ 고종황제의 폐슬 또한 황제의 예에 맞게 변형되었다. 즉 조선시대 왕의 폐슬에는 藻, 粉米, 黼黻의 네 가지 문양만이 시문되었던 것이 화염에 싸인 여의주를 가운데 두고 승룡과 강룡이 어우러진 도안으로 바뀌었다(표 1). 이 시기 一乘一降하는 용의 도상은 폐슬 뿐 아니라 皇穹宇, 景福宮과 德壽宮의 정전 천정 중심부에 놓인 寶蓋, 궁중용 朱漆圓盤의 천판, 또 경복궁 사정전의 여좌 뒤쪽의 벽화로도 그려져 같은 도상이 통용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²⁵

〈표 1〉

	世宗實錄·五禮(1423)	大韓禮典(1898추정)	大明會典(1509)	三才圖會(1607)
衣				
裳				
蔽膝				

²⁴ 최규순, 위의 논문 (2010), pp. 204-206.

²⁵ 김주연, 『조선시대 궁중의례용 쌍용도상의 유형과 함의』, 『동아시아의궁중미술』 공저 (한국미술연구소, 2013), pp. 334-359 참조.

를 연접하여 실물 크기로 만들고 평 문양을 그려 놓았다. 12등과 9등 적의를 위한 것들로 각 부분의 조각들이 남아있다. 고궁박물관 소장 9등 적의본은 영친왕비의 적의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 영친왕의 가례를 올리기 위해 명나라 제도를 참작하여 준비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⁷ 적의본과 폐슬본은 창호지를 여러 겹으로 하여 완성된 실물의 형태와 크기에 맞추어 만들었고 그 위에 문양도 똑같이 그렸다. 따라서 적의와 폐슬을 재현하는데 실물 못지않게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²⁸

『대한예전』에는 적의를 입을 때 함께 착용하는 꿩과 봉황이 장식된 九鳳冠의 도설도 게재하고 있으나, 현전하는 유물이나 사진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러한 관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는 대수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의례서에서는 대한제국의 위기에 맞는 이상적인 복식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에 맞게 변용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십이장복과 12등의 적의는 새로 선포한 황제국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시각이미지로 사용되었다.

2) 器用

『대한예전』에서는 면복과 적의 이외에 제기들의 도설에서도 십이장복의 도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龍樽, 山壘, 罍彝 등 술그릇에서 용, 산, 곡식 등의 문양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예서나 『삼재도회』 등의 출판물에 보이는 호이와 유이의 도설은 보이지 않으며 면복에만 시문된다.

『대한예전』에 기록된 제기 도설은 대한제국과 연대가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景慕宮儀軌』(1783) 등의 도설보다는 『世宗實錄·五禮』, 『國朝五禮儀序例』의 도설을 따르고 있어 당시의 복고적인 성향을 드러낸다.²⁹ 산뢰와 가이 모두 『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을 따르고 있으며, 산뢰의 경우 도설과 매우 유사한 鑄製 제기가 종묘에 소장되어 있으나 받침대가 추가되어 있다. 반면 가이의 경우 『대한예전』에는 『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처럼 무늬가 없는 가이를 그려 넣고 있으나 현전하는 유제 가이는 벼에 곡식이 달린 상형의 형상을 보여주며 『종묘의궤』(1706)나 『경모궁의궤』(1783)의 도설과 더 유사하다(표 2). 이러한 차이는 『대한예전』이 명대 황후의 구봉관의 도설을 실었으나 제작하지 않고 대수를 사용한 것처럼,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와 같은 범본이 되는 고식적인 도안을 우선하여 게재하였으나 실물의 제작에서는 현실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²⁷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편, 앞의 책, (문화재청, 2005-2006), pp. 73-75.

²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편, 위의 책, (2005-2006), p. 73.

²⁹ 이러한 경향은 다른 제기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 실제로 현전하는 제기들은 『국조오례의』를 따른 『대한예전』의 도설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대한제국이 황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명나라의 『대명집례』나 청나라의 『황조예기도식』등을 따라 제작하였기 때문에 卮나 盤 등이 더해지며 화려한 황실제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³⁰

〈표 2〉

	世宗實錄·五禮(1423)	景慕宮儀軌(1783)	大韓禮典(1898추정)	현전 罍彝
罍彝				
山罍				

제기들 이외의 기물에서는 황실에서 사용된 雙龍紋朱漆圓盤에서 일승일강하는 쌍용 도상이 발견된다. 붉은색 천판 한가운데에 여의주를, 좌우에는 오르고 내리는 한 쌍의 용을 배치하였다. 용과 여의주는 금색 칠을 하고 청색조의 구름무늬를 적절히 배치하였다. 風穴의 앞면과 뒷면에는 투각의 초화문 속에 聖壽 두 글자를 좌우 양쪽에 배치하였으며 풍혈의 좌우에는 萬歲 두 글자로 장식하였다. 聖壽萬歲라는 투각문은 이것이 왕의 전용 소반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규모 및 채색은 일반 소반과는 구별된다. 이 밖에도 19세기 말로 추정되는 주칠반에는 오악의 도상이 시문되는데, 『정씨목원』에 있는 ‘五嶽四瀆’의 도안과 매우 유사하다(표 3). 형태는 다르지만 대한제국 시기에는 오악과 사독을 각각 시문한 것발도 제작되었다.

³⁰ 장경희, 『조선왕실의 궁중 의물』(민속원, 2013), p. 393.

〈표 3〉



3) 儀仗과 儀物

대한제국 시기의 정전 내부와 의례적 행사에 사용되었던 의물과 의장에는 조선시대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롭게 변모된 양상을 보여준다. 경복궁 근정전 천정 중앙 보개에는 황금색의 7조 룡이 일승일강하며 대칭을 이루고, 어좌 뒤로는 〈五峯屏〉이 설치되었다. 어좌 아래에는 雙龍扇과 雉尾扇이 세워지고 다음으로 金鉞斧와 水晶杖을 세웠다. 이는 1897년(광무 1년) 황제의 의장으로 맨 앞에 쌍룡선, 다음에 日傘·團扇·黃蓋·紅蓋 등의 순서로 세우고, 그 뒤에 金월부·수정장을 나란히 세웠다.³¹ 도끼는 강력한 힘 또는 악에 대한 응징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월은 천자가 장군을 임명할 때 수여하는 의물로, 전권을 넘겨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쌍룡부채는 원형 부채 모양의 의장물로 종이로 초배접한 후 붉은색 명주로 다시 배접하였다. 그 위에 양쪽으로 청룡과 황룡 두 마리를 내려오는 모습과 오르는 모습으로 그렸다. 다양한 색상의 안료로 앞뒷면에 똑같이 그렸고 금분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흔적이 남아 있다.³² 일승일강하는 용의 도상은 『儀禮』 「觀禮」편의 태상기에 제시된 용의 도안으로, 조선시대에는 교룡기에 시문되었지만 조선말부터 대한제국 시기에는 앞에 언급했듯이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된 도상이다.

조선시대의 의장에서는 용이나 꿩 모두 날아오르며 대칭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 반면, 치미선 또한 쌍룡선의 도안과 같이 두 마리의 꿩이 한 마리는 날아오르고 다른 한 마리는 내려오는 모

³¹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와 유사한 의장의 배치는 시작되었다. 『高麗史』 第69卷, 志 第23, “謁祖眞儀 便殿禮畢禮司奏初嚴鹵簿儀仗陳列於毬庭繖扇衛仗自康安殿庭左右陳列至泰定門 尙舍局設輦褥於殿庭...” 『고려사』 제72권 「輿服」 「朝會때의 儀仗」에서도 발견되며 조선에서 대한제국까지 지속된다.

³² 국립고궁박물관 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안내도록』 (국립고궁박물관, 2011), p.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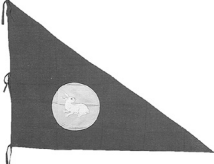
습으로 배치되었다. 치미선은 위쪽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직사각형에 상서로움을 뜻하는 꿩의 깃털을 이어 붙여 바탕과 먼지를 막는 데 썼다. 꿩이 임금의 의장에 사용된 예로 역시 종이로 초 배접한 후 붉은색 명주로 다시 배접하고 가장자리에 꿩의 꼬리를 그린 다음 그 안에 두 마리의 꿩과 꽃을 그렸다. 뒷면은 본래 파란색 명주 바탕에 모란을 그렸으나 모두 바래서 바탕색과 안료색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의장물들의 도설은 『대한예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치미선의 도설은 실려 있지 않으나 『대명집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표 4). <오봉병>을 뒤로 한 어좌 앞에 이러한 의장물이 함께 배열되면 정전 내부는 尙古的인 성격을 짙게 풍기는 신성한 회귀의 공간이 된다.

한편 이 시기에는 해와 달의 도상을 시문한 새로운 의장기가 제작된다. 삼각형의 日旗는 바탕이 보라색과 흑색으로 이분되고 중앙에 금박의 원형이 두고 그 안에 삼족오를 상징하는 새를 시문했다. 세 개의 다리 표현은 보이지 않으며 일반 새와 같이 평범하게 묘사되었다. 月旗에는 황색 월문 속에 백색의 토끼문이 시문되었다. 뒤를 돌아보고 앉은 토끼는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절구를 찧고 있다거나 두꺼비와 함께 등장하는 신화적 서사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달과 연결된 이미지로 등장한다. 보라색 삼각기인 五星旗에는 보라색 紋段에 星紋이 금박으로 찍혀 있다. 오성기뿐 아니라 청색 삼각의 문단에 28수 중 여섯 번째 별인 尾星을 금박으로 찍은 尾星旗도 제작되어 대가행렬의 뒤를 따라 다녔다.³³ 28수 중 열세 번째 북방의 별인 室星을 상징하는 청색 삼각기도 남아 있는데 금박으로 시문하였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깃발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여러 별 문양을 시문하여 만든 의장기들이 보인다. 또한 삼각형으로 재단된 푸른색 깃발에 금색 선으로 오악이 그려진 五嶽旗, 큰물을 그린 四瀆旗 등도 현전한다. 『대한예전』에서는 이러한 의장기들의 도설을 찾아볼 수 없으나 청대 노부도에서 보이는 삼각형의 의장기와 형태가 유사하다.³⁴ 이와 더불어 황룡기도 제작되었다. 어가행렬에서 독과 함께 임금 가까이 위치시켜 왕권을 상징하였던 교룡기보다는 크기가 작으며, 교룡기와 함께 왕의 거동 때 사용했다(표 4).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日月星辰, 五嶽四瀆, 黃龍의 문양을 시문하여 격상된 황제국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³³ 白英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4), pp. 69-74.

³⁴ 中國國家博物館, 앞의 책, (中國國家博物館, 2007), pp. 159-161.

〈표 4〉

大韓禮典(1898추정), 金鉞斧	金鉞斧	大明集禮(1369)	雉尾扇
			
大韓禮典, 龍扇	龍扇	大韓禮典, 交龍旗	黃龍旗
			
日旗	月旗	五星旗	五嶽旗
			

대한제국 시기에도 의궤는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황후로 장례가 치러진 명성황후의 『國葬都監儀軌』에서는 꿩이 시문된 大輿가 그려져 있다. 세종대에 중국의 유거대신 사용하게 된 꿩문양의 대여와 그 주위를 따르는 보불운삼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에서 조선의 전통이 지켜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나, 황금색 〈棺衣畫報圖〉(도13), 제복을 입은 군사들 등의 모습에서 근대화되고 격상된 황제국의 모습이 발견된다. 『高宗大禮儀軌』(1897),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1921) 등 다른 의궤에서도 어보를 담은 寶蓋또한 황금색으로 채색하고 있다. 황제의 가마와 깃발은 황색으로 표현되었고 의례도 어람용 표지가 초록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다.³⁵

³⁵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민속원, 2010), pp. 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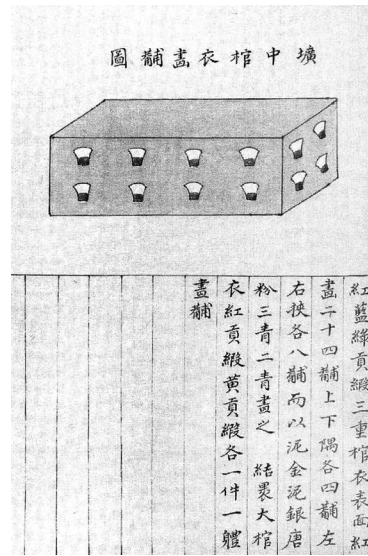
이렇듯 동아시아의 황제국으로 승격한 대한제국은 <보록>, <관의화보>, <황룡기> 등에는 황색을 칠하여 격상시켰고, 천자의 기에만 사용했던 일월성신과 오악사독의 도상을 거대한 깃발에 시문하여 의장기로 사용하는 등 위엄을 드러내지만 유거 대신 꿩을 시문한 대여와 같은 조선시대의 의물을 사용하며 조선적 전통과의 연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4) 建築

건축은 복식만큼이나 위계질서를 뚜렷이 보여주는 시각적 매체이다. 건축 장식은 특정계급에게 허락되며 면복에도 시문되었던 일승일강의 쌍용 도상은 어좌 위의 보개에 장식되어 격상된 대한제국의 위의를 표상했다. 보개는 궁궐 정전이나 편전 등 왕이 머무르는 건물 천장에 설치되었던 장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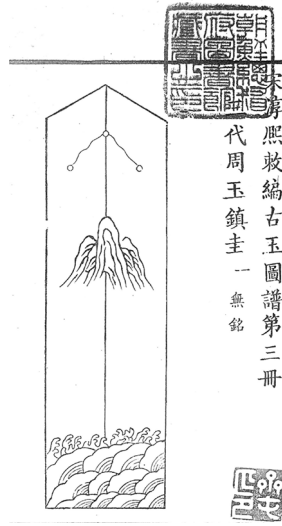
고종이 황제로서 처음 하늘에 제사 지냈던 원구단의 부속건물이었던 황궁우의 천장에는 일승일강하는 쌍용이 화염에 싸인 여의주를 가운데 두고 조각되었다. 천지신명의 위패를 모신 신전의 꼭대기에 자리 잡은 두 용에는 강렬한 황금색이 칠해져 있다. 황룡은 경복궁 근정전과 더불어 덕수궁 중화전 천장 중앙에 마련된 부다가 안에도 장식되었다. 근정전의 용과 비교하면 발가락이 다섯 개이다. 중화전은 고종이 황제에 오른 후 지어진 대한제국의 정전으로, 두 마리의 황룡은 건물의 천장 중심에서 새로운 황제국의 면모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한다. 이처럼 조선시대 정전의 보개를 장식했던 봉황 두 마리는 두 마리의 황룡으로 교체되었다. 황룡이 장식된 덕수궁 중화전 및 황궁우 등의 답도 또한 봉황 대신 쌍용으로 바뀌었다. 답도의 두 마리 승룡은 가운데 여의주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 보록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형상과 같다. 답도 역시 두 마리 승룡으로 도상을 교체하며 황제국의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시각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전내부의 어좌 뒤에는 <오봉병>이 놓였다. <오봉병>은 일월성신의 도상을 면복이나 깃발에 사용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의 전통을 담은 병풍으로 대한제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미 이 병풍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³⁶ 이성미 교수의 『詩經』 <小雅> 「天保」시를 형상화 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³⁷ 이 그림은 현존하는 의궤를 통해 五峯屏, 五峯山屏, 또는 日月屏風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렇듯 제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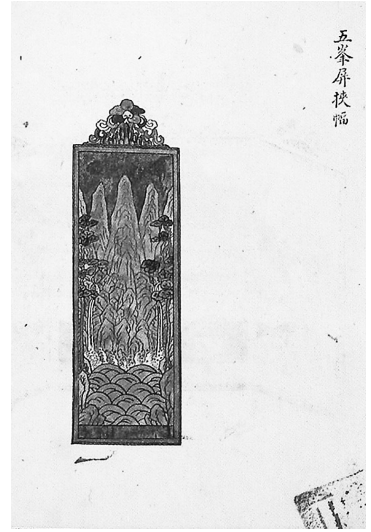


도 13 <廣中棺衣畫補圖>,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1895년

살펴보면 이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 도상은 오봉산과 일월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십이장의 도상과 일치하는 것도 일월과 산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고옥도보』에는 성신과山水의 이미지로 장식한 주대 鎭圭의 도설이 실려 있는데(도 14), 특히 『影幀模寫圖鑑儀軌』



도 14 『古玉圖譜』, 宋, 清代 재간행본



도 15 『影幀模寫圖鑑儀軌』, 1901년, 장서각

과 매우 유사하여, 이와 같은 의례적 기물 도안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도 15).

〈오봉병〉과 같이 전통을 준수하는 또 다른 예는 『대한예전』의 보의 도설이다. 중국의 보의가 아닌 『국조오례의』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제작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명대 황후의 구봉관의 도설, 세종대의 제기도설을 차용했으나 실제 제작은 현 상황에 맞게 했던 선례에 비추어 개혁의 바람 속에서도 이상적인 전통을 따르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정신적 지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 조선,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십이장의 도상이 시문된 현황을 정리한 〈표 5〉를 통해서도 조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문영역을 확산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의를 갖추고자 했던 대한제국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³⁶ 김홍남 교수는 미국 The Asia Society에서의 “An Iconological Study of the Sun-and-Moon Landscape Screens of Yi Palace Halls: Monarchy and the Confucian Principle of Government”(未刊, 1989. 2)이라는 발표를 필두로 군주와 유교 통치 원리를 상징하는 오봉병에 주목하였고, 이어 이성미 교수 또한 의궤의 기록을 통해 더욱 세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성미·유송욱·강신향, 『朝鮮時代御眞關契都監儀軌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이후 명세나의 『朝鮮時代 五峯屏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이라는 흥례도감을 통해 오봉병을 살펴본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아직 도상적 연원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³⁷ 『詩經』〈小雅〉「天保」, “天保定爾, 亦孔之固, 爾單厚, 何福不除…如山如阜, 如川之方至, …如月之恒, 如日之升,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松柏之茂, 無不爾或承.”

2. 일제 강점기 황실전통의 지속

대한제국 황실은 1910년 망국과 함께 이왕가로 격하되었으나 이왕직이라는 일본의 宮內省 소속 기관에 의해 왕실의례의 실행과 왕실의례에 관한 기록은 계속되어 갔다. 일제강점기(1910-1945)의 이왕가에서는 규모와 威儀는 축소되었으나 喪禮, 御眞模寫와 眞殿의 보수, 祭禮의 시행은 가장 중요한 왕실의례였으며, 이를 기록한 20종 총 37건의 의궤가 唯一本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시기 간행된 『純獻貴妃禮葬儀軌』(1911),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1919), 『純宗孝皇帝御葬主監儀軌』(1926),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1940) 등에는 왕실 의례의 지속과 함께 핑이 시문된 大輦, 주위를 호위하는 黼黻雲翬, 황색에서 붉은색으로 격하된 〈棺衣畫黼圖〉, 상장례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五峯山屏風〉의 도설과 기록이 실려 있어 전통의례의 표상으로서 일월, 산, 핑, 도끼, 亞 등 십이장의 개별도상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純獻貴妃禮葬儀軌』(1911)의 보불운삼의 도설은 『국조오례의』의 도설과 거의 같아 복고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다시 발견된다. 大官衣와 壙中棺衣 등에 24개의 도끼를 그려 넣는 〈관의화보도〉 또한 이전과 같이 泥金, 泥銀, 唐粉, 三清, 二清의 채색이 사용되었으며 화사가 작업하였다.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권上 「易服諸具」에는 특정 화원과 공장의 이름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畫師4인이 동원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어장을 준비하고 진행한 관료들의 많은 수가 일본인이었으나 전통과 법식이 요구되는 의물제작에는 대한제국기에 많은 경험을 쌓았던 화원과 사자관들이 참여했음을 고종과 순종의 어장주감 의궤 「賞典」을 통해 알 수 있다.³⁸ 십이장의 도상들은 의궤 이외에 사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1918년 1월 16일 영친왕이 종묘참배의식을 거행하고 영녕전을 참배하는 사진에서 九章이 시문된 면복이라든가 순종의 장례식 행렬에서 핑이 시문된 대여와 군중사이로 높이 솟은 보불운삼 등이 발견된다.³⁹

면복의 착용은 영친왕의 사진이나 의궤의 도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璿源殿影幀修改謄錄』의 내용을 통해 1935년 3월 당시 신선원전 12실에 봉안되었던 어진들에서도 고종과 순종까지 면복상의 봉안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冕服用龍

³⁸ 박정혜, 「藏書閣소장 일제강점기 儀軌의 미술사적 연구」, 『美術史學研究』 제259호 (2008), p. 125.

³⁹ 『御葬寫眞帖』,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純宗國葬錄』(조선박문사, 1925).

⁴⁰ 『璿源殿影幀修改謄錄』 『御景幀修補工程明細書』



도 16 冕服用龍紋木板, 조선, 가로: 14.3, 세로 14.0, 높이: 4.4, 국립고궁박물관



도 17 《大阪毎日新聞》1922年 5月 21日 기사, 국립고궁박물관

紋木板)이 보존되어 있는데 오조룡이 측면을 응시하는 형태로 양각되어 있다(도 16). 이 목판 뒷면에 ‘면복견농판’이라는 한글목서가 있어 조선시대 구장복의 어깨 부분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제국 시기의 십이장복의 章文들은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조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尙書』 「익직」편에 명시한 畫와 繡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어 조선시대의 보수적인 측면이 다시 확인된다. 이 목판의 문양과 유사한 형태를 《大阪毎日新聞》1922年 5月 21日 기사의 영친왕 구장 면복 어깨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다(도 17). 한편 적의는 영친왕비가 1922년 순종을 알현할 때 착용했던 것이 현전한다. 영친왕비는 황태자비이기에 그 아랫단계인 9등의 꿩 문양이 시문되었다.⁴¹ 이러한 적의를 입고 찍은 영친왕비의 사진도 현전한다. 심청색의 紋緞을 사용하여 홀으로 지었는데 138쌍의 꿩과 오얏꽃 형태의 小輪花 168개의 무늬가 9등으로 직조되어 있다. 이는 광무 원년(1897) 제정된 『대한예전』에 황태자비의 적의는 심청색에 꿩무늬(翟文) 138쌍(9등)과 소륜화를 넣고 紅色領에는 운봉문을 織金한다는 기록과 같은 형태이다.

이밖에 영친왕과 영친왕비가 사용했던 옥규가 현전하는데 영친왕의 옥규는 山形의 무문이

⁴¹ 국립고궁박물관 편, 『국립고궁박물관』(2011), p. 120.



도 18 영친왕비의 옥圭, 옥·견, 144×6.0cm, 국립고궁박물관

며, 영친왕비의 옥규에는 사생적인 곡식문이 그려져 있다(도 18). 이미 조선시대부터 곡규의 문양에 대해 대신들이 논하던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 규에는 『시경』과 『서경』의 사생적인 형상이 담겨 있다.⁴² 이 역시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되었던 황실의례의 전통을 보여준다.

한편 송대의 채침이 집전하고 명대 영락년간 胡廣 등이 명을 받아 제작하여 출판한 『書傳大畧』은 1916년에도 재 간행되었는데, 1820년 조선시대 말 간행본과 비교하면 해와 달속에 까마귀와 두꺼비가 시문된 원본의 도설이 실려 있던 것과는 달리 1905년(光緒31년) 청 황실에서 제작한 『欽定書經圖說』의 도설과 유사하다. 또한 1927년에 一冊으로 제작된 판화본인 『經餘』는 경서의 참고서임을 밝히고 있으며 권말에 “昭和二年 六月 謄寫 原本 李王職 藏書”라는 기록으로 인해 등사본으로 이왕직에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여』는 크게 시경, 서경, 역경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복식, 예기, 악기, 지물, 문양, 병기, 수레 등의 구체적 형태를 알려주는 도설이 다량 수록되어 있다. 가장 화려하게 그려진 도설은 수레의 형태와 깃발 및 말의 각종 장식물들을 복잡한 명칭과 함께 자세하게 표현한 車制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모든 그림은 펜촉으로 그려낸 듯한 예리한 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림을 부각시키고자 여백을 검게 처리하였다. 『경여』의 禮器諸圖 下, 服飾器用諸圖 항목에는 袞衣와 繡裳, 禮器의 도설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十二章服圖〉에는 『서전대전』의 고전적인 도설들이 반복적으로 게재되어 이전 출간물의 도해를 충실히 인용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도 1921년 순종 때 창덕궁 구선원전 후신으로 역대 임금의 어진을 봉안했던 신선원전을 만들게 되는데, 내부에는 열두 개의 감실이 있고 용상과 교의가 배설되어 있으며 용상 뒤로

이 밖에도 1921년 순종 때 창덕궁 구선원전 후신으로 역대 임금의 어진을 봉안했던 신선원전을 만들게 되는데, 내부에는 열두 개의 감실이 있고 용상과 교의가 배설되어 있으며 용상 뒤로

42 『英祖實錄』 17年(1741) 2月 5日條, “주례 첫 권의 그림에서 陳氏가 말하기를, 〈沈存中이 말하기를, 곡벽의 무늬는 곡식날알과 같고, 포벽은 무늬가 봉인데 봉은 포화가 필 때와 같다. 이 때문에 이제 『주례』의 그림이 곡벽은 쌀 날알이 뒤섞여 떨어지는 형상으로 만든 것인데, 『시경』과 『서경』의 그림에는 곡벽은 모두 벼의 이삭이 나와 결실하는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오직 널리 상고해 정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봉병이 배설되어 있다.⁴³ 당가 천판에는 대한제국 시기에 유행했던 화염에 싸인 여의주를 가운데 둔 승·강룡의 도상이 장식되어 전통의 지속이 재확인 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 천자의 면복에 집결되었던 십이장의 도상들이 근대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 탄생한 대한제국에서 황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용한 시각이미지로 사용되었던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의례적인 복식과 기물, 正殿에 시문된 尙古의인 십이장의 도상들은 범람하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대한제국이 조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책봉으로 이루어진 중국적 질서에서 벗어난 독립국임을 천명하는 가장 복고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1910년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고 황제는 왕으로 격하되어 1945년까지 이왕가로서 존재하지만 이왕직에서는 상장례와 관련된 의궤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경서를 이해하기 위한 서적들이 간행된다. 비록 서적에 실린 도설은 중국의 도설을 답습하고 있으며 질도 떨어지지만 강한 전통의 지속을 엿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전하는 사진자료를 통해서도 왕실의례에 사용되었던 복식과 의물에 십이장의 도상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재확인된다.

지금까지 면복에만 귀속되어 연구되었던 십이장문에 대하여 복식이외의 분야에서 그 시문 현황을 조사한 것은 단편적으로 분절되어 연구된 궁중의례미술의 시문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물론 이 12가지 도상이외에도 의례미술과 궁중을 장엄하는 다른 도상들도 많이 현전한다. 그러나 『상서』에서부터 등장하는 오랜 역사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천자의 면복에 채택되었던 열두개의 도상들이 의례미술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적인 시문현황을 <표 5>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십이장이 발생한 중국에서는 이 도상들이 복식 뿐 만아니라 의례 미술의 주요 장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황종, 규, 유거 등의 의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정황이 발견된다. 조선은 제후국으로서 구장복을 입었으나 오봉병에 일월을 그려넣었거나 유거를 대여로 바꾸어 사용하는 등 고대 예서와 중국의 예제를 바탕으로 조선적인 변화도 이루었다. 이어 대한제국은 器用과 儀物에서 조선적인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服飾, 儀仗, 建築에서는 시문범위를 확대하여 황제국의 위의를 드러내는

⁴³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국립고궁박물관, 2015), p. 126, 도판 67참조.

시각이미지로 이 도상들을 적극 활용한다. 중국이 청대에 들어 면복제도가 폐지되고 십이장의 도상들의 길상화가 진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禮治라는 왕실의 이상을 표상하는 ‘古典象’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측면을 보인다.

물론 이 시기에 한국에서도 개별도상에 따라 부분적인 길상화가 이루어지긴 한다. 일월성신과 오봉의 도상은 무속화에서 종종 나타나고, 보불 도상 또한 부적이나 장식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불(亞자)문은 가구나 깔개, 담 등의 주변 문양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에 비해 화층, 조, 화, 분미는 대중적인 문양화가 적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황은 후속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 십이장 도상(The Twelve Insignias), 대한제국(The Daehan Empire), 대한예전(Daehan yejeon (Ritual Code of the Daehan Empire)), 궁중의례미술(Court Ritual and Ceremonial Arts), 尙古(Antiquarianism)

■ 투고일 2016년 12월 10일 | 심사개시일 2016년 12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7년 1월 18일 ■

〈표 5〉 십이장 도상의 시문현황

	服飾			器用		儀物		儀仗			建築		
	중국	조선	대한 제국	중국	조선/대한 제국	중국	조선/대한 제국	중국	조선	대한 제국	중국	조선	대한 제국
十二章													
日	십이장복(황제)	×	십이장복(황제)	×	×	十二章黃琮 十二章圭	×	太常旗	×	日旗 月旗 五星旗	×	오봉명	
月						黃琮, 圭, 璧						×	
星辰													
山	구장복(산이하 9장)	구장복(왕)	구장복(황태자)	山帶 圓盤	山帶, 圓盤	圭, 璧, 柳車	×	儀仗旗	×	五嶽旗	太墓, 踏道	오봉명	
龍				친자의 기물	圓盤, 탁자	黃琮, 圭, 璧, 柳車, 敎命	寶蟲 敎命	太常旗 龍扇	交龍旗 龍扇	황룡기 龍扇	踏道寶蓋 插屏 등	×	踏道寶蓋 思政殿 벽화
華蟲(평)	12등翟衣	9등翟衣	12등翟衣	鳥彝	×	黃琮, 圭, 柳車, 厭翟車	翟芻, 大興	翟扇	翟扇	翟扇	×	×	×
宗彝	칠장복(화중이하 7장)	칠장복(왕세자)	칠장복(왕세손)	宗彝	×	黃琮, 圭	×	×	×	×	×	×	×
藻(물품)	오장복(조이하 5장)	오장복(왕세손)		×	×	黃琮, 圭, 璧, 柳車	×	×	×	×	太墓, 궐 내부 梁	궁궐 내부 梁	
火				×	×	黃琮, 圭, 柳車	大興	의장기의 회염			여의주의 회염		
粉米	삼장복(분미이하 3장)			學彝	學彝	黃琮, 圭, 璧, 柳車	穀圭	×	×	×	×	×	×
黼(도끼)				×	×	黃琮, 圭, 蓮巾, 柳車, 夷衾, 楹飾, 黼嬰	殺, 棺衣, 黼嬰	金, 銀鈿傘	金, 銀鈿傘			黼宸(도설)	
黻(亞)	일장복	中單	中單	祭器의 바탕문	祭器의 바탕문	黃琮, 圭, 柳車, 楹飾, 黼嬰	大興, 黻雲	×	×	×	무덤, 건축장식	궁궐 담장	

참고문헌

1. 사료

- 『景慕宮儀軌』, 1777.
- 『考工記圖』, 戴震, 北京: 商務印書館, 1955.
- 『高麗圖經』
- 『古玉圖譜』
- 『高宗太皇帝明成皇后祔廟主監儀軌』
- 『國朝五禮儀』
- 『國朝五禮序例』
- 『金史』
- 『大明集禮』
- 『大明會典』
- 『大韓禮典』
-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1895.
- 『社稷署儀軌』, 1783.
- 『三才圖會』
- 『尚書正義』
- 『書經』
- 『世宗實錄·五禮』
- 『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 1645.
- 『宋史』
- 『肅宗國葬都監儀軌』, 1720.
- 『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 1834.
- 『新定三禮圖』, 聶崇義撰, 北京: 中華書局, 1992.
- 『御眞圖寫都監儀軌』, 1902.
- 『御眞移摸都監廳儀軌』, 1872.
- 『禮記』
- 『遼史』

『元史』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

『程氏墨苑』

『正祖國葬都監儀軌』, 1800.

『祭器都監儀軌』, 1611.

『朝鮮王朝實錄』

『周禮』

『獻敬惠嬪殯宮都監儀軌』, 1815.

『憲宗國葬都監儀軌』, 1849.

『孝宗仁宣后中宮殿禮都監都廳儀軌』, 1651.

『後漢書』, 范曄撰, 李賢等注, 北京: 中華書局, 1965.

2. 한국어문헌

가현문화재단, 한미사진미술관 편, 『대한제국 황실의 초상 1880-1989』, 한미사진미술관, 2012.

郭熙著, 신영숙 역, 『郭熙의 林泉高致』, 문자향, 2003.

郭熙著, 허영환 역주, 『林泉高致』, 열화당, 1989.

국립고궁박물관 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안내도록』, 국립고궁박물관, 2011.

_____,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도록』, 국립고궁박물관, 2006.

_____, 『궁중문양판』, 국립고궁박물관, 2013.

_____, 『꾸밈과 갖춤의 예술, 粧纈』, 국립고궁박물관, 2008.

_____,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2.

_____, 『조선왕실의 가마』, 국립고궁박물관, 2006.

_____,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국립고궁박물관, 2015.

_____,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국립중앙박물관, 2011.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연구 2004』, 국립현대미술관, 2004.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35, 2006.

_____, 『조선시대 국가 전례서의 편찬양상』, 『奎章閣』 제 21집, 2009. 4.

김주연, 『조선시대 궁중의례미술의 十二章 도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_____, 『조선시대 궁중의례용 쌍용도상의 유형과 함의』, 『동아시아의 궁중미술』 공저, 한국미술연구소, 2013.

김학주 역저, 『새로 읽긴 시경』, 명문당, 2010.

김홍남, 『18세기의 궁중회화 - 유교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18세기의 한국미술』, 국립중앙박물관, 1993.

명세나, 『조선시대 흥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오봉병 연구』, 『미술사 논단』 28호, 2009.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편, 『문화재대관 = Important folk materials: 중요민속자료』 2, 문화재청, 2005-2006.
- 박정혜·윤진영·황정연·강민기,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2011.
- _____,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 박정혜, 『藏書閣소장 일제강점기 儀軌의 미술사적 연구』, 『美術史學研究』 제259호, 2008.
- 박종민, 『조선시대 국장용 견여와 대여의 변화양상』, 『고궁문화』 창간호, 국립고궁박물관, 2007.
- 白英子, 『朝鮮時代の 御駕행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4.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편, 『奎章閣名品圖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6
- 신영훈 편저자, 『國寶 11-宮室建築』,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 여호규 외 4인,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 책봉관계』 고구려 연구재단 연구총서 15, 고구려연구재단, 2006.
- 李基東 역해, 『서경강설』,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상옥 역, 『禮記』 中卷, 명문당, 2003.
- 이성미·유송옥·강신향, 『朝鮮時代御眞關契都監儀軌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이정옥·남후선·권미정·진현선, 『중국복식사』, 형설출판사, 2000.
- 임민혁, 『대한제국기 『대한예전』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실학』 34, 2007.
- 장경희, 『조선왕실의 궁중의물』, 민속원, 2013.
- 張彥遠 지음, 조송식 옮김, 『歷代名畫記』 上·下, 시공사, 2008.
- 鄭玄·賈公彥 注疏, 五江原 譯註, 『儀禮, 고대사회의 이상과 질서』, 청계출판사, 2000.
- 朝鮮博文社, 『純宗國葬錄』, 1926.
- 池載熙·李俊寧 해석, 『周禮』, 자유문고, 2002.
- 최규순·고부자, 『冕服 文章 연구: 『尙書』 『益稷』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3호, 2006.
- 최규순, 『大韓禮典 복식제도 연구』, 『아세아 연구』 53권 1호, 2010.

3. 동양어문헌

- 杉本正年, 『中国復飾考2·袞冕十二章について』, 『衣生活研究』 제 2권 2호, 1981.
- 徐湖平 主編, 南京博物館 編著, 『中國清代官窯磁器』, 上海文化出版社, 2003.
- 首都博物館 編著, 『回望大明—走近万历朝』, 北京美術攝影出版社, 2011.
- 杨鴻勳, 『宮殿考古通論』, 北京: 紫禁城 出版社, 2009.
- 阎步克, 『服周之冕—『周礼』六冕禮制的兴衰变异』, 北京: 中华书局, 2009.
- 王宇清, 『國服史學鉤沈』, 臺北: 輔仁大學出版社, 2000.
- 原田淑人, 『中國服裝史研究』, 黃山書社, 1988.
- 原田淑人, 『漢六朝の復飾』, 東洋文庫, 1967.

林巳奈夫, 『中國古玉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91.

林巳奈夫, 『天子の衣裳の十二章』, 『史林』第52巻6號, 1969.

朱敏, 『清人《大駕鹵簿圖卷》研究』, 『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研究叢書: 繪畫卷風俗畫』, 中國國家博物館, 2007.

崔圭順, 『中國歷代帝王冕服研究』, 上海: 東華大學出版社, 2007.

黃能馥·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1999.

4. 서양어문헌

Rawski, Evelyn S and Jessica Rawson. *China: The Three Emperors, 1662-1795*, London: Royal Academy of Arts, 2005.

Vollmer, John E. *Ruling from the Dragon Throne: Costumes of the Qing Dynasty (1644-1911)*, Berkeley/Tronto: Ten Speed Press, 2002.

Haig, Paul and Marla Shelton. *Threads of Gold: Chinese Textiles: Ming to Ch'ing*, Pennsylvania: Schiffer Publishing, 2006.

Thorp, Robert L. *Son of Heaven: Imperial Arts of China*, Seattle: Son of Heaven Press, 1988.

5. 기타(CD-ROM, 인터넷사이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www.itkc.or.kr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本社編, 中國基本古籍庫,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국문초록

十二章은 古代 中國 天子의 禮服인 冕服에 시문되었던 12가지 圖像을 지칭한다. 일찍이 『尙書』 「益稷」 편에서부터 그 기록이 나타나며, 後漢의 明帝가 십이장을 시문한 면복을 황제의 제복으로 정식으로 제도화하면서, 12개의 章文은 天子에서 大夫까지 계급별로 12, 9, 7, 5, 3, 1로 차등을 두어 사용되었으며 통치적 질서를 드러내는 표상이 되었다. 때문에 이 도상들은 秦漢 시기의 伏生을 선두로 여러 유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고대 중국의 어떤 장식적 시각이미지보다 문헌과 도설로 그 형상과 의미에 대해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이처럼 열두 개의 도상들은 황제의 예복에 결집되어 장식되었으나, 다른 의례적 기물의 도안이나 회화적 이미지 가운데에서도 단독 혹은 집합적으로 시문된 예들이 다수 발견된다. 실제 중국 고대의 禮書에서는 각 도상이 지닌 함의와 의례성에 대한 여러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상서』 「익직」 편을 분석한 유학자들의 견해 중에도 십이장의 문양이 복식과 기물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唐代 張彥遠의 『歷代名畫記』, 宋代 郭熙의 『林泉高致』 같은 화론서에서는 십이장의 도상이 그림의 시원으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에 이르면 유교적 통치이념 아래 五禮에 의거한 禮治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冊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사여 받은 면복과 翟衣, 玉圭 등은 왕조의 정당성과 유교적 禮를 드러내는 시각적 표상물로 자리한다. 조선의 왕은 제후국으로서 九章服만을 입을 수 있었으나 여러 궁중의례장식에 십이장의 도상들이 사용된다.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함께 황제가 된 고종은 十二章服을 입고 儀仗旗에 日月을 시문한다. 服飾과 儀物에 시문된 의례적이고 尙古의인 도상들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황제국으로 독립하였음을 천명하는 가장 복고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고 황제는 왕으로 격하되어 1945년까지 李王家로서 존재하지만 李王職에서 발행한 의궤와 經書의 도설, 현전하는 사진자료를 통해 왕실의례에 사용되었던 복식과 의물에 십이장의 도상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중국의 경우 청대에 들어 면복제도가 폐지되고 십이장의 도상들은 다양한 길상화가 진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왕실의 전통성을 표상하는 상고적인 '古典象'으로 끝까지 존속되었으며, 개별도상에 따라 부분적인 길상화가 이루지는 보수적인 특징을 보인다.

Abstract

Inheritance and Proliferation of The Twelve Insignias in the Daehan Imperial Period

Kim Joo Yeon^{*}

The Twelve Insignias refers to a set of twelve iconic images sewn on the ritual costume of ancient Chinese emperors, which finds the earliest reference in the “Yi and Ji” chapter of Book of Document. Since Emperor Mingdi of Later Han Dynasty (r. 57- 75) proclaimed a formal dress with the twelve insignias as the emperor’s ritual costume, the set has been considered a symbol of the hierarchical ruling system, as its variations (i.e. sets of twelve, nine, seven, five, three, or one insignia) have been accorded to different official ranks. Accordingly, the iconic images have long been discussed among Confucian scholars so seriously that literature and illustrations dealing with their form and meanings survive in a greater number than those of any other decorative images.

Though having been compiled for the imperial ritual costume, the twelve insignias were also employed, selectively or collectively, for ritual vessels and even paintings. Several ancient classics on Confucian rites touch on the implication and ritual significance of each insignia. Among them is the “Yi and Ji” chapter of Book of Document that has led some Confucian

^{*} Ewha Womans University

scholars to make an interpretative argument that the twelve insignias are available both to costumes and ritual articles. Many books on paintings, including *Records on Famous Paintings of All the Dynasties* by Zhang Yanyuan (ca.815-ca.877) and *Lofty Messages of Forests and Streams* attributed to Guo Xi (1001-1090), mention the twelve iconic images as an origin of paint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dhered to Confucian state ideology, faithfully observing its ritual system. When the King was installed by Chinese approval, the King's and Queen's ritual costumes and ceremonial jade items were granted as a token of the installation, and they served as symbolic images to show the legitimacy of sovereignty as well as the commitment to Confucian ritual structures. It is remarkable however that the twelve insignias have been in active use for other ritual and ceremonial decorations in the Joseon court, although the King of Joseon, being considered a lord of feudal states, was allowed only to wear a ritual dress with nine insignias.

King Gojong (1852-1919), who proclaimed himself the Emperor of the new Daehan Empire in 1897, wore a ritual dress with the twelve insignias and added the icons of the sun and moon onto his royal flags. Interestingly, the images of ritualistic and antiquarian significance stood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odern nation. Even though its colonization by Japan in 1910 entailed the demotion of the Emperor to a King from Yi Royal Family, a number of literal and visual materials published by the Office of Yi Royal Family confirms that the use of the twelve insignias were persistent in decorating royal ritual costumes and articles until 1945. While the Qing dynasty of China has abolished the ritual costume system, which helped the twelve insignias develop into a richer range of auspicious images, Korea paid constant reverence to the antiquarian images as emblems of royal legitimacy and remained conservative in that such development seen in China is observed to a limited extent.